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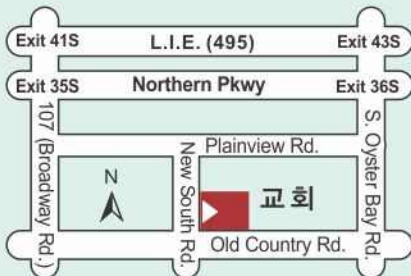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160장, 358장		
기 도 Prayer	최훈집사	김근태장로	박재우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겔(Ezek)37:1-10		
찬 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 씬 Sermon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손정민집사	2부 지재홍장로	3부 윤희주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렘(Jer)1:11-19

제목: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보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끌립니다. 요즘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정보시대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많은 조회 수를 가진 프로그램과 그 내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라 감정을 자극하는 드라마나 콘서트를 많이 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팬데믹 속에서도 트로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것도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이 있다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정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틀린 말을 해도 맞는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맞아도 틀리다고 말하는 무분별함을 우리는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합 2:4).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본 환상입니다.

1. 살구나무 가지 환상(11-12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살구나무(아몬드)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아무리 겨우내 식물이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 끊는 가마 환상(13-16절)

끊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혹독한 재앙이 유다에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김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3.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17-19절).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무감각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 말 할 줄 모른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렘 1:8-9). 그리고 파괴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뽕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렘 1:10).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렘 29:10).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

“내가 무엇을 보느냐?”

1. 오늘의 시대상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골3:5). 말세에 고통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이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리에서 어서 속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딤후3:1-5). 오늘의 시대상에서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2.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다시 심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3. 교회의 목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소리는 무엇 일까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큰 산도 스톱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슌 4:6).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꼭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이 시대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목장이야기

Youth Group Senior Trip

유스그룹의 시니어 트립은 유명근 전도사가 중고등부에 속해 있을 때부터 매년 있던 행사로, 유스그룹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오랜 전통의 여행입니다.

보통 봄방학을 이용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들과 함께 지난주 3박4일 동안 조지호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시니어 트립의 목적은 중고등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조언을 전해주고, 또한 지난 6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자라난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다시금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여행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대로 식사를 만들어 서로에게 대접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는 조지 호수에서 카약을 타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비록 신체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지라도 대학시절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응원하며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찬양예배

팬데믹 가운데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

김현주집사(은유목장)

인생으로 보면 허망함으로 온 가족이 좌절가운데 있어야 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40년 동안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하셨다.

작년 11월 언니가 미국을 방문해서 귀국하기 일주일전 한국에 아버지께서 위독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나와 언니는 바로 귀국하여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남동생도 필리핀에서 귀국하였다. 가족 간 면회는 물론 통화도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교회와 지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동맥이 파열되기 직전에 얇은 막이 대동맥을 덮고 있어서 혈압이 떨어지기까지 대기할 시간이 있었다. 기도 중에 세브란스병원이니 원목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영접기도를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엄마와 함께 중2(15세)부터 40년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 가족도 볼 수 없는 외로움과 큰 수술을 앞둔 두려움 가운데 결국 주님을 만나신 것이다.

기적과 같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백성으로 불러가셨다. 주재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서는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천국소망을 분명히 누리게 하시고 조출하게 치른 발인예배에서도 친히 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셨다.

입관예배 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준비 없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해 드리고 싶었던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수고하셨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어머니 잘 모시고 형제우애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족에게 주신 기적과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기 도 전미경권사
말 씬 김 종훈목사

7월7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 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7월11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손정민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지재홍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윤희주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7월14일 수요예배	도명원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정기당회: 오늘 오후 12시 30분, 교회
- 6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 9명, 다독 110명
*친교실에 목장별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장년교육사역부)
- 제자훈련 101 전체 모임: 7월 6일(화) 오후 8시, 친교실
- 팬데믹 동안 받은 은혜를 주제로 간증문:
*제출기한: 7/7일(수)까지 부목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팬데믹 중 선포된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은 것, 팬데믹 중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받은 은혜, 팬데믹 중 말씀읽기, 말씀쓰기 등으로 받은 은혜
*각 목장에서 1편 이상
- 차량운행으로 섬기시는 교회버스운행사역부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박성우집사&김영애권사(인주, 인용, 인혜생일), 전용수집사(아내생일)
- 사랑의식탁: 전용수집사(아내생일)

행사예고

- 5/13-7/24	피택 직분자 교육(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회)
- 7/5-8/13	예일 여름학교(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 7/11	졸업 및 진학 예배 오후 2시 30분
- 7/25	제직회

QT본문

요일	일(4)	월(5)	화(6)	수(7)	목(8)	금(9)	토(10)
본문	약(Jas) 2:1-13	약(Jas) 2:14-26	약(Jas) 3:1-12	약(Jas) 3:13-18	약(Jas) 4:1-12	약(Jas) 4:13-5:6	약(Jas) 5:7-12

목양 칼럼

2021. 27.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멈추었던 예배와 일상이 다시 재개방(re-opening)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수요예배 시간일지라도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찬양팀의 힘찬 찬양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연합찬양대에서도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을 불러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는 마치 재개방을 알리는 찬양제처럼 너무 은혜롭고 감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힘과 멋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약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Dennis Jernigan의 간증, You are my all in all).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참으로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9-10).

무명하면서도 유명하고,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골로 풍랑 속의 사도바울의 모습입니다. 선장, 선주, 백부장이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 그 배에 있는 276명을 안심시키고 밥을 먹게 한 사람은 죄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닫혀졌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열린 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힘으로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멋있게 삽시다.